

## 무담보소액대출 제도 도입을 통한 제주여성창업 활성화 방안모색

정영태\*

### 〈국문초록〉

본 연구는 다른 지역과 달리 여성경제활동이 활발한 제주에서 산업기반이 약한 제조업 등의 기반 강화의 일환으로 여성 창업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최근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마이크로크레디트 제도 도입에 대한 조사를 토대로 지역 여성창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조사 결과 여성 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마이크로크레디트 제도를 도입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마이크로크레디트 제도는 여성 빈곤층, 여성 예비창업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지역은 전국적으로 가장 높은 여성경제활동참가율과 여성자영업자 비율을 자랑하고 있지만 현실 여건은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기존의 마이크로크레디트 제도를 그대로 적용 할 경우 역시 어려움에 직면할 위험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여 제주형 마이크로크레디트 모델 개발 역시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존 마이크로크레디트 제도 도입에 있어 대상자를 제주지역 여성창업으로 초점을 맞춘다면 제도 도입 및 활성화를 통한 여성의 취·창업 현실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주제어:** 여성창업, 제주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무담보소액대출, 제주형 무담보소액대출모델

\* 제주발전연구원 초빙연구원. lucy@jdi.re.kr

『젠더와 문화』 제3권 2호(2010) pp.107-147

© 2010 계명대 여성학연구소

## 1. 서론

이 글은 제주지역 여성 경제활동 참여에 있어 취업 중심이 아닌 창업에 초점을 두고 있다. 여성들은 남성에 비하여 소규모 창업에 있어 특히 자본금 부족으로 창업이 쉽지 않은 실정을 감안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무담보소액대출제도 도입 필요성과 타당성을 연구한 것이다. 우선 무담보소액대출(Microcredit) 제도는 제도권 금융기관과 거래를 할 수 없는 빈곤층 및 영세 소규모기업에 금융서비스(대출)를 제공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이는 협의 관점에서 본다면 마이크로파이낸스(Microfinance)와 동일한 개념이며, 넓은 의미로 본다면 빈곤층 등을 대상으로 대출·예금·자금이체·보험 등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체의 활동을 의미한다.

지난 2005년 UN은 '마이크로크레디트(Micro-credit)의 해'를 선포하였다. 그 후 세계적으로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금융서비스 증진에 대한 연구와 관심이 꾸준히 증가되면서 각국의 노력이 집중되고 있는 추세이다. 마이크로크레디트는 1976년 방글라데시 그라민은행의 유누스 총재에 의해 처음 출발된 정책으로 초기 프로젝트사업에서 출발하여 1983년 빈곤층을 위한 공식은행으로 그라민은행에서 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지난 수년간 전 세계적으로 마이크로크레디트 기관들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특히 사회보장제도가 취약하고 빈곤문제가 심각한 국가들을 중심으로 급성장하여 왔다. 그러나 사회보장제도가 상대적으로 잘 정비되어 있는 유럽국가 역시 무담보소액대출제도가 생겨나고 있으며, 이는 빈곤 국가에서만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시장으로부터의 배제, 금융서비스로부터의 배제, 복지제도로부터의 배제가 존재하는 모든 곳에서 필요한 제도라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노무현정부에 이어 이명박정부에서도 금융소외자에 대한 자활·자립을 촉진하여 새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다. 5대 국정지표 가운데 “능동적 복지” 전략으로 ‘시장기능을 활용한 서민생활 안정’에서 ‘금융소외자 신용회복 지원’을 핵심과제로 제시하였다.

최근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양극화로 영세 자영업자 및 신용불량자 등 금융소외계층이 크게 증가하는 반면 서민 금융기관은 위축되고 있는 실정이다. 상호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등 서민금융기관<sup>1)</sup>은 부실화 및 구조조정 등으로 서민금융기능이 위축되고 그 결과 영세기업과 저소득 개인이 금융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지극히 제한되어 빈곤의 악순환과 계층 간 갈등 등 금융문제가 심화되고 있어 하나의 대안으로 무담보소액대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그리고 제주지역은 전통적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여성의 높은 경제활동 참가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소규모 자영업, 돌봄노동 혹은 감정노동, 비정규직 등 괜찮은 일자리와는 실질적으로 거리가 있는 실정이다. 이는 제주 산업구조가 대기업 부재에 따른 일자리 부족, 고용시장 불안정, 협소한 자기자본규모, 부채 증가 등과 같은 경제구조적인 문제로 결국 높은 비중의 생계형 자영업자, 무분별한 자영업 진출로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자영업 진출의 증가는 당초부터 무계획적이고 무분별한 성격이 짙어 창업에 따른 자영업 영업이익이 자연 감소함에 따라 창업성공

1) 서민금융기관은 저축은행, 신협, 상호금융, 새마을 금고 등이 있다. 2009년말 기준으로 서민금융기관의 총여신이 예금은행의 27.6%로 불과하며, 신용대출의 경우 전체 대출의 10%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으로 주로 담보대출을 통한 대출 업무가 이루어짐에 따라 담보를 제시하기 어려운 서민들의 경우 대출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실정이다(이건호 KDI. 블로그)

률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주지역에서 여성창업 활성화와 특히 여성금융소외계층에 대한 무담보소액대출 제도의 도입 및 성공적인 추진은 제주사회가 지니고 있는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여성의 활발한 경제활동 참여와 생활안정, 여성고용시장 안정 등에 기여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이 글에서는 무담보소액대출 제도의 이론과 무담보소액대출 제도 도입의 지역적 의의를 고찰하고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무담보소액대출 제도 도입에 관한 필요성을 조사함으로써 제주지역 여성창업 활성화와 여성금융소외계층, 여성빈곤층을 위한 무담보소액대출 제도의 도입을 주장하고자 한다.

## 2. 무담보소액대출 제도의 이론적 고찰

### 1) 무담보소액대출(Micro Credit)의 개념

무담보소액대출 제도는 1976년 방글라데시 그라민은행 유누스 총재에 의해서 하나의 프로젝트로 시작된 후 1983년 빈곤층을 위한 공식은행인 그라민은행에서 처음 시도되었다. 그라민은행은 가장 빈곤한 계층의 여성을 대상으로, 매주 상환방식을 통한 자금관리 능력 배양, 5명에게 2 : 2 : 1 방식으로 대출하는 공동체 신용보증과 공동체 자활 중시, 매주 저축을 통한 상호 협력기금 관리 능력 배양 등으로서 빈곤문제 해결의 사회복지 통합적인 접근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에 그 의의를 찾아볼 수 있다(임원희, 2006).

무담보소액대출은 1970년대 중반에 저개발국가 중심으로 태동하여 빈곤탈출의 유용한 정책수단으로 인정받아 오고 있으며, 1990년대 이후는 유럽, 미국 등에서 실업대책 또는 일을 통한 빈곤탈출이라는 근로연

계복지정책 제도로서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노무현정부에 이어 이명박정부에서도 금융소외자의 자활·자립을 촉진하여 새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5대 국정지표 가운데 “능동적 복지” 전략으로 ‘시장기능을 활용한 서민생활 안정’에서 ‘금융소외자 신용회복 지원’을 핵심과제로 제시하였다(제17대대통령직인수위원회, 2008).

지금까지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는 무담보소액대출 제도 개념을 몇 가지로 정리하면 먼저 노대명 외(2003)는 무담보소액대출 제도가 소액창업대출사업이라는 용어로 사용되면서 저소득층이 생계를 위해 소규모의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적은 액수의 창업자금을 무담보로 대출하는 제도라고 정의하고 있다. 보건복지부(2008)는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소외된 저소득계층이 자영업 등을 영위하고자 할 때 이를 지원해 주는 소액대출제도’라고 정의하고 있다. 임원희(2006)는 빈곤층에게 생계형 창업을 통한 자활을 할 수 있도록 작은 창업기금을 보증인이나 담보물 대신 신용을 담보로 하여 소액 자금을 대출하는 제도라고 정의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해경 외(2005)는 빈곤층을 대상으로 소액의 대출과 부수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빈민들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체의 활동으로 정의하고, 이 지원체계는 경제적인 관점뿐만 아니라 주거나 의료서비스 등 부가서비스를 포함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심리적, 정서적 지원체계까지 포함하기도 한다고 하였다.

이상 종합해 보면 무담보소액대출 제도는 일반적으로 제도권 금융기관과 거래를 할 수 없는 빈곤층 및 영세 소규모 기업에 금융서비스 즉 대출을 제공하는 것으로, 협의의 마이크로파이낸스(Microfinance)와 동일한 개념이다. 광의의 마이크로파이낸스는 빈곤층 등을 대상으로 대출, 예금, 자금이체, 보험 등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무담보소액대출 규모는 통상 1인당 GNI(Gross National Income) 이

하의 소액을 원칙으로 무담보 대출하게 되며, 대출용도는 창업자금, 운영자금, 생활자금 등 다양하게 활용된다.

## 2) 한국사회에서의 마이크로크레디트의 성장 배경

최근 우리나라는 경기양극화로 영세 자영업자 및 신용불량자 등 금융소외계층이 크게 증가하는 가운데 서민금융기관의 기능이 위축되고 있어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금융서비스인 무담보소액대출 제도의 확대는 빈곤의 악순환과 계층 간 갈등 등의 사회문제 해소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경제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고 금융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 무담보소액대출 제도가 급속하게 성장하게 된 배경을 압축하면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노대명 외, 2003; 이해경 외, 2005).

첫째, 최근의 일자리 창출추세와 근로빈곤층의 직업능력에 비추어 탈빈곤을 위해서 취업이 아닌 창업을 촉진하는 방법을 고려하고, 또한 근로빈곤층을 위한 일자리 부족에 대하여 정책적 지원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정보통신 발달, 디지털화 및 자동화로 생산성 증가와 노동기회 감소, 경제영역의 세계화 가속화로 국제경쟁력을 가진 대기업과 그렇지 못한 중소기업 및 영세자영업으로 양분되고, 경쟁력이 취약한 중소기업 및 영세자영업에 속하는 집단의 노동기회 상실, 노동시장 유연화에 따른 실업 발생과 재취업 기회 박탈 등으로 전반적인 취업 일자리 부족에 따른 빈곤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둘째, 근로빈곤층의 대부분은 심각한 금융소외에 처하고 있어 창업대출을 비롯한 별도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창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빈곤층이 증가하지만 이들을 위하여 기존 금융기관이 충분한 역할을 수행한다면 창업대출을 담당하는 별도의 금융기관이 고려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빈곤층의 경우 금융기관이 요구하는 담보와 보증을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금융기관은 빈곤층 대상의 소액대출을 통해 수익을 확보할 수 없다고 판단, 빈곤층이 기존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소외되고 있다. 즉 창업에 대한 빈곤층의 관심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빈곤층이 기존 금융기관 대출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것이 마이크로크레디트가 성장하게 된 배경이다.

셋째, 기존 금융기관의 창업자금 대출과 정부의 창업지원서비스가 가진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통합적인 소액창업지원 전문기관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창업능력과 여건이 취약한 근로빈곤층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차별화된 운영프로그램이 필요하지만 기존의 창업대출지원기관으로는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기존의 창업지원정책이 분절적으로 작용하여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상황에서 저발전국의 몇몇 비영리민간단체가 중심이 되어 실시했던 창업자금 대출과 창업지원서비스 연계프로그램이 소정의 성과를 거둠에 따라 창업지원사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우리나라에서 무담보소액대출의 성장 이유를 노대명(2007)은 크게 3가지로 제시하였다. 첫째, 양극화시기의 빈곤으로 외환위기(IMF) 이후 1998년과 2003년 사이 빈곤율이 급격하게 증가한 반면 임금부문 일자리가 빠르게 감소함에 따라 많은 실업자가 대부분 자영부문으로 집중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또한 이 시기는 내수침체로 자영부문 역시 높은 빈곤율이 나타났다. 이 시기는 그 어느 때보다 근로빈곤층(working poor)이 증가하였다. 그리고 1999년과 2000년 신용카드의 남발과 2002년~2004년 사이 신용불량자와 빈곤율의 증가에서 밀접한 관련성을 찾아볼 수 있다. 이 시기는 앞서 설명하였듯이 저임금·고용불안계층이 계속 증가하고 내수침체로 영세 자영업자가 증가하며, 신용불량자가 양산되던 시기로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무담보소액대출 기관이

실업과 빈곤, 그리고 신용불량문제가 최고조에 달했던 2003년 “사회연대은행”이 처음 설립되기도 하였다.

둘째, 방대한 정책으로 오히려 사각지대에 대한 어려움이 가중되었다. 즉 일자리 창출을 통해 빈곤탈출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정부지원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민간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다. 사실 당시 외환위기 이후 고용불안계층이 증가하고 자영부문의 취업자 비중이 좀처럼 감소하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가 내놓는 고용지원대책과 소득보장대책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는 오히려 심화되었다. 공공부문의 창업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 근로복지공단, 소상공인지원센터 등 각각의 부처에 의해 시행되고 있으며, 일정 규모이상의 사업만 해도 9개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창업지원사업은 자금회수 등을 이유로 담보 및 보증인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점포임대료 지원 등의 형식을 취하고 있어 창업이 필요한 저소득층의 경우 혜택을 받기 어려우며, 창업자금 대출 이후의 사후관리체계의 취약성으로 입지선정, 업종선택, 경영 및 홍보기술 이전 등 다양한 서비스가 효과적으로 제공되지 못함에 따라 창업 성공율이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이다. 빈곤층의 소득보장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빈곤층을 위한 최후의 사회안전망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우 수급 자격이 가능하다고 추정되는 사각지대의 집단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어 이 점에서 빈곤층의 창업을 지원하는 무담보소액대출은 빈곤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셋째, 시민사회단체의 자발적 노력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 사회에서 무담보소액대출은 다양한 시민단체의 연대를 통해 설립되어 이들의 자구적 노력을 통해 자리 잡고 있다. 최근 복지 지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양상은 정부의 지원을 받은 다양한 민간단체들이 직접 위탁

사무를 통해 관련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이다. 반면 무담보소액대출 사업의 경우 정부의 지원에 의존하지 않고 민간이 전적으로 주도함에 따라 사업의 자율성과 효과성을 어느 정도 담보하였다는데 있다. 2000년과 2003년 설립된 〈신나는 재단〉, 〈사회연대연행〉은 설립초기 많은 희생을 감수하면서 사업을 수행하였으며, 정부의 보조금에 의존하기보다 시민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연계함으로써 사업에 활력을 불어넣어왔다. 즉, 정부지원을 받은 다른 어떤 사업보다 자체적으로 수립한 사업목표에 충실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자체 운영을 통해 외부의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운 형태로 운영을 할 수 있었다. 사업추진방식도 다양한 지원조직과 인력을 결합하여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모형을 구축하여 성과를 높였다. 특히, 인적 자원 연계는 자원봉사 형태로 구성을 하면서 자원인력으로 변호사, 회계사, 기업가, 연구자 등을 폭넓게 참여시켜 사업기획과 프로그램 평가 등을 수행하게 하여 경비를 절감하는 한편 필요한 전문성을 보강할 수 있도록 하였다. 결국 시민사회단체 중심의 새로운 네트워크 활용 사례인 셈이다.

마지막으로 노대명(2007)은 무담보소액대출이 우리나라서 올바르게 성장하기 위해서 지향해야 할 세 가지의 이념적 가치를 제시하였다. 그는 사회연대성과 자립성, 효율성을 제시하였는데, 사회연대성(social solidarity)의 경우 무담보소액대출 기관은 설립 당시 생업 및 필수재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하는 업무를 수행하여 왔지만, 계속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체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이 제시되고 있지만 사업수행기관의 자체 수익을 위해 대출업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결국 무담보소액대출은 빈곤층이 빈곤과 사회적 배제에서 벗어나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점에서 사회연대의 중요한 가치기반 될 수 있으며, 무담보소액대출의 지원을 받는 빈곤층은 자신의 부를 위해 활동하기보다 다른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토양을 제공한다는 점에

서 사회연대적이라는 것이다.

다음으로 자립성(self-reliance)은 기존의 빈곤대책은 근로능력이 있는 집단에게 조차 무엇인가를 지원하는데 몰두하였다면, 무담보소액대출은 지원이 아닌 '대출'이라는 점에서 개인의 책임과 노력을 우선적으로 전제 한다는 것이다. 결국 무담보소액대출 기관은 사회적 배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서도 모든 것을 결정하지 않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보다 안정적으로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게 인도하고, 사업추진과정에서 좌절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격려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그러므로 무담보소액대출기관은 자립을 지원하는 후원자라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효율성(efficiency) 문제인데 무담보소액대출이 지향하는 일차적 가치는 사회연대적 가치에 기반하였지만 효율성을 담보해야한다는 점이다. 무담보소액대출은 창업경험이 없는 여성가구주에게 사업 효율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 또는 개인이 생산하는 서비스(재화)가 향후 소비자의 엄정한 평가를 통해 성공 또는 도태될 수 있다는 점을 각인할 수 있으며, 투입된 무담보소액대출기금이 이러한 효율성의 원칙을 포함해야한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각국가별로 무담보소액대출이 70-90%의 높은 상환율을 나타낼 수 있었던 것은 사업 지원방식과 철저한 교육을 바탕으로 창업성공의 잠재력을 가진 집단을 정확하게 선별하는 노력에서 얻어진 결과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 3) 마이크로크레딧 제도의 사회·경제적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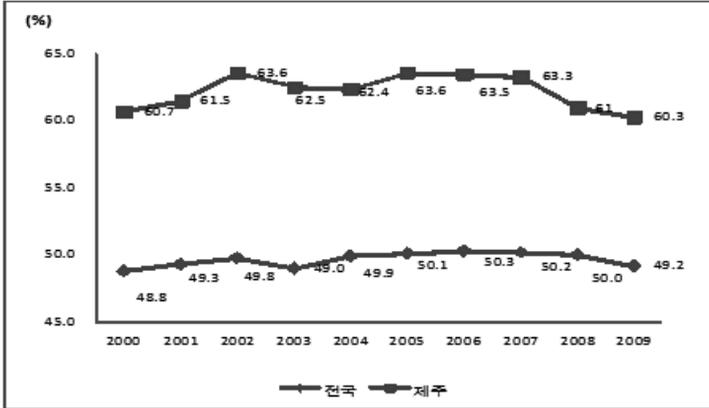
무담보소액대출 제도는 정부의 직접적인 현물보조보다 빈민층의 자립심 제고와 사회적 지위 향상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결과 소외계층의 소득증대 및 빈곤탈출을 통해 무력감 해소 및 사회 참여 기능 향상과 자영업자 창업 지원 시 고용증대 효과가 기대되며 무담보소액대출 제도를 통해 창업지원에 대한 사전 및 사후관리를 함으로써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가능하였다. 비교적 사회복지제도가 잘 갖춰진 선진국의 경우 사회복지 사각지대 해소, 사회복지비용 절감, 계층 간 금융서비스 차별화 시정 등의 효과를 가져왔다. 프랑스는 ADIE (Association pour le Droit L'initiative Economique)로 실업자 및 빈곤층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보다 무담보소액대출 제도를 통한 창업지원이 사회복지 비용면에서 훨씬 효과적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다.

### 3. 제주 여성과 마이크로크레디트

#### 1) 제주여성들의 높은 경제활동 참가율과 강한 자활 의지

제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비율은 2000년 이후 평균 62.5%로 전국 평균 49.5%에 비해 월등히 높다. 2009년 제주지역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60.3%로 10년 전 비해 5.9% 증가하였다(통계청 2008). 이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여성취업자중 연령별로는 40-49세가 24.4%로 가장 높고, 교육정도별로는 고졸학력이 33.1% 차지하고 있으며 산업별분야는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및 기타부문이 38.3%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다.



자료: 통계청, 각년도경제활동참가율(<http://www.kosis.kr>)

[그림 1] 제주지역 여성경제활동참가율 추이

또한 여성의 자활의지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사업체수를 살펴보면 여성이 대표자인 사업체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08년 말 전체 사업체<sup>2)</sup>의 42.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종사자의 46.8%가 여성으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2) 제주특별자치도는 2008년 말 통계를 기준으로 전체 사업체가 44,307개 사업체로 농업, 임업 및 어업 432개, 광업 17개, 제조업 1,910개,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24개,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 57개, 건설업 1,215개, 도매 및 소매업 11,653개, 운수업 5,678개, 숙박 및 음식점업 10,485개,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86개, 금융 및 보험업 596개, 부동산업 및 임대업 869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619개,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370개, 교육 서비스업 2,180개,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283개,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373개,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4,820개 등으로 구분된다.

〈표 1〉 제주특별자치도 사업체수와 여성대표자 수(2001-2008)

(단위: 수, 명)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전체	40,258	41,756	42,136	42,531	43,305	43,609	44,246	44,307
여성 대표자	17,187	17,916	18,029	18,102	18,376	18,311	18,637	18,781

자료: 제주특별자치도 통계연보, 각년도

## 2) 빈곤계층 증가와 기초생활분야 예산과 생활안정기금 운영

제주도내 빈곤가구는 2006년 11,379세대에서 2007년 11,605세대, 2008년 11,780세대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수급자수는 총 21,100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07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12,696가구 23,856명으로 전체 가구의 6.1%를 차지하여 제주인구 4.3%가 빈곤계층이라고 할 수 있다.

수급자의 지역별 분포는 제주시가 69%인 14,481명이며, 서귀포시는 31%인 7,375명이다. 특히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노인가구가 수급자 전체 가구의 각각 32.8%와 35.5%를 차지함에 따라 고령빈곤계층이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한부모가정의 경우 2006년 대비 15% 가구가 증가하였으며 제주시의 경우 모자가정의 증가는 전년대비 16.7%에 그쳤으나 부자가정의 경우 26.1%가 급증하였다.

그리고 제주지역은 금융소외자로 분류되고 있는 신용등급 8등급 이하자 비중이 전국 시·도 가운데 3번째로 높으며, 개인 채무자회생제도 신청자수가 1.9%로 경제규모 대비 높은 수준이다. 신용등급 현황에 있어 연령을 살펴보면 8-10등급 인원 중 30-40대가 전체의 61%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국 평균 비중 보다 2.4% 많은 8.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신용등급 현황에 있어 연령을 살펴보면 8-10등급 인원 중 3-40대가 전체의 61%를 차지하고 있으며, 성별로는 남성이 55.7%, 여성이 44.3%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국 평균 보다 2.2% 높은 44.3%를 차지하여 여성의 신용 등급이 비교적 낮은 실정이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내 기초생활보장 및 생활안정기금 용자 신청자 가운데 신용불량자가 전체 신청자 가운데 13%로 나타남에 따라 제도금 용권을 이용할 수 없는 지역 내 소외계층은 15% 수준으로 유추할 수 있다. 용자지원내역을 살펴보면 제주시 용자 건수가 전체 용자의 65.2%인 30건이며, 서귀포시가 34.8%인 16건이다. 용자지원자의 연령은 40대가 43.5%로 가장 많으며 다음이 30대로 17.4%를 차지하고 있으며 용자지원자의 성별은 남녀 각각 50%로 남성의 경우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비슷하나 여성의 경우 제주시의 여성 용자 지원자가 78.3%이며 전체 용자신청의 39.1%를 차지함에 따라 제주시 여성이 비교적 용자를 많이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용자가구의 보호 유형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일반가구가 전체의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의 모자가정과 차상위 계층의 모자가정이 각각 15.2/5를 차지하고 있다.

### 3) 전국에서 가장 높은 창업희망률과 높은 자영업자 비중

제주지역 구직자의 구직방법 중 '사업준비'가 16.3%를 차지하여 전국 최고 수준이며 희망 근로형태 중 자영업주 등을 포함한 '비임금근로자' 비중 또한 15.7%에 달하여 전국 최고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표 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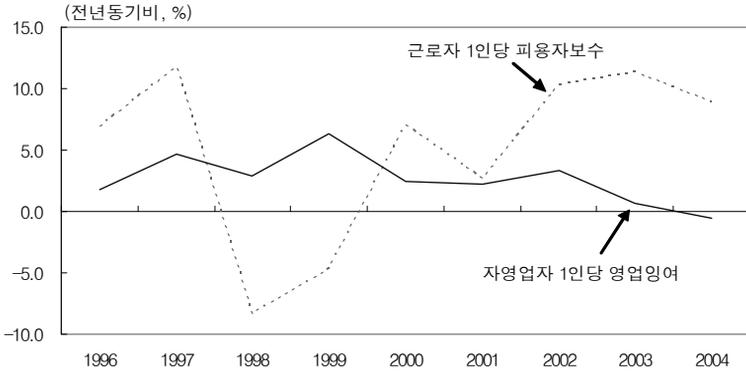
〈표 2〉 구직자의 구직방법 및 희망근로 형태

(단위: %)

구분	제주	전국	도 지역 평균	순위
구직방법 : 사업준비	16.3	10.0	11.0	16개 시·도 중 1위
희망근로형태 : 비임금근로자 <sup>주)</sup>	15.7	8.9	9.6	16개 시·도 중 1위

주) 자영업자 + 고용주 + 무급가족종사자  
 자료: 한국은행 제주본부, 2006년 기준

최근 제주지역 자영업자 비중은 전국적인 감소추세와 달리 증가 추세이나 오히려 영업잉여는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제주지역의 자영업자 비중(자영업자수/취업자수, 2005년 기준)은 35.3%로 전남(39.8%)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이는 전국 평균(27.0%)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산업구조상 농림어업과 관광서비스 중심의 산업구조로 영세자영업체에 고용된 임금근로자까지 포함한 광의의 자영업 관련 고용 비중은 67.7%로 추정되며 고용에 있어 자영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제주지역의 경우 신규 자영업의 진출부문은 진입장벽이 낮은 운수·숙박·음식점업 등 일부 업종에 과도하게 쏠리고 있다. 특히 2000년 이후 관광수입 부진과 대형할인점의 도내 진출 증가 등으로 자영업자의 1인당 영업잉여 증가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근로자와의 소득 증감률 격차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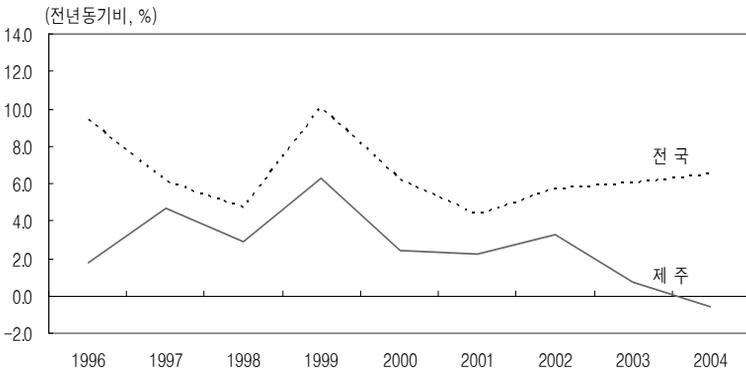


주) 근로자 1인당 피용자보수=피용자보수/임금근로자수, 자영업자 1인당 영업잉여=영업잉여/자영업자수

자료: 통계청 지역내총생산 계정, 고용통계

[그림 2] 근로자 및 자영업자의 소득 증감률

다음으로 2001년 이후 대기업의 수출호조의 영향을 받은 여타 지역과 비교할 경우 제주지역 자영업자 1인당 영업잉여 증가율 하락세는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자료: 한국은행 제주본부, 2007

[그림 3] 자영업자 1인당 영업잉여 증감률

한편 제주경제는 첨단기술 중심의 벤처 창업이 활발하지 못한데다 비자발적 자영업 진출 및 농림어업 종사자의 자영업 진출이 높고, 대형 할인점 진출로 도·소매업이 급감하고 있으나, 아직 대형업체의 진출이 활발하지 않은 숙박 및 음식점업은 사업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소규모 창업관련 대표적인 업종으로 미용업과 음식점의 개·폐업 현황을 살펴보면 미용업의 경우 최근 2년간 194개소가 개업을 하였으나 175개소가 폐업을 하였으며, 음식점업의 경우 1,694개소가 개업을 하였으나 1,496개소가 폐업을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여성 자영업 비중이 높은 미용업은 제주시의 경우 개업대비 폐업률이 2007년 9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음식점도 서귀포시의 경우 120%의 폐업률로 서귀포시의 자영업 잉여이익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4. 제주지역의 마이크로크레딧 욕구 조사

### 1) 설문 조사 개요

제주지역의 마이크로크레딧 욕구 조사를 위하여 주요 설문문항은 성별, 가구특성, 주거 특성 등 인구학적 부문 7개 문항, 직업·실직경험·창업관련 등 경제 부문 20개 문항, 마이크로크레딧제도 부문 3개 문항 등으로 구성하였다(〈표 3〉 참조).

특히, 표본 집단을 우선적으로 일반 여성을 대상으로 하기보다 탈빈곤을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 빈곤층을 표본 집단으로 하여 기초생활수급 가정, 한부모가정, 자활참여자 등을 모집단으로 표본을 추출하였다.

〈표 3〉 설문지 조사 항목

구 분		조 사 항 목	
인구학적 부문 (가구특성) 7개 문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별</li> <li>◦학력</li> <li>◦가족수</li> <li>◦월 평균 수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령</li> <li>◦혼인상태</li> <li>◦주거형태</li> </ul>
경제 부문 20개 문항	경제활동 부문 4개 문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직업/직장</li> <li>◦실직사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실직경험</li> <li>◦실직기간</li> </ul>
	가계경제 부문 5개 문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생활비 전담 가구원</li> <li>◦가계경제 곤란 사유</li> <li>◦가계채무 채권대상</li> <li>◦가계경제에 있어 가장 시급한 자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계경제 지출항목</li> <li>◦가계채무 정도</li> </ul>
	창업 부문 11개 문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창업여부</li> <li>◦초기 창업 자금</li> <li>◦창업 고려 여부</li> <li>◦창업관련 대출</li> <li>◦창업 준비에 있어 고려 사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창업 아이템</li> <li>◦창업 실패 원인</li> <li>◦창업 자금 마련 방법</li> </ul>
마이크로크레딧 제도 부문 3개 문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도 인지여부</li> <li>◦마이크로크레딧 운영시 고려 사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용여부</li> </ul>

## 2) 경제활동 영역

마이크로크레딧 욕구를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가장 주된 직업은 공공근로 및 취로사업(정부·지자체 사업포함)<sup>3)</sup> 153명 32.2%, 파출부, 간병인 99명 20.8%, 판매·서비스직 41명 8.6%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파출부·간병인 8명, 생산·기능직, 단순노무직(건설보조·환경미화), 농업이 각 6명씩 응답하였다(〈표 4〉 참조).

3) 응답자의 직업이 공공근로와 취로사업 등에 집중하고 있는 것은 가계소득이 낮은 계층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함에 따라 조사처가 자활사업장이나 공공근로 대상자를 직접 조사함에 따라 드러난 것임.

〈표 4〉 직업구성

전 체	N=475		%	
	1순위	2순위	1순위	2순위
생산·기능직	18	6	3.8	1.3
식당보조	23	2	4.8	0.4
파출부·간병인	99	8	20.8	1.7
자영업·노점상	17	4	3.6	0.8
판매·서비스직	41	3	8.6	0.6
단순경리직	17	3	3.6	0.6
단순노무직	24	6	5.1	1.3
공공근로 및 취로사업	153	5	32.2	1.1
가내부업	4	2	0.8	0.4
농업	9	6	2.0	1.3
무직	21	-	4.4	-
기타	37	4	7.8	0.8
무응답	12	426	2.5	89.7
합계	475	475	100	100

성별에 따른 직업의 응답을 보면 여성은 공공근로 및 취로사업 30.3%, 파출부·간병인 26.4%, 판매·서비스직 7.9% 등으로 나타났으며, 남성의 경우 공공근로 및 취로사업 38.9%, 단순노무직 15.7%, 판매·서비스직 11.1% 순으로 나타났다.

실직경험은 전체 응답자 중 무응답 38명을 제외한 437명이 응답하였는데 이중 실직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155명(32.6)로 나타났다. 실직경험에 대하여 여자(112명)가 남자(43명) 보다 높고, 비율로 보면 9.3%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차이가 크진 않지만 실직경험은 여자가 많

은 것으로 나타나 제주지역 여성들이 남성보다 더 고용유지가 불안한 것으로 여겨진다.

성별에 따른 실직사유의 차이를 보면, 건강상의 이유가 남(18명, 16.7%), 여(49명 13.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실직사유에 대한 남녀의 차이를 보면 사업장 도산, 사업장 구조조정과 같은 사유 면에서 특히 남자들의 응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남자들이 경우 사업장의 부도나 구조조정 등 경제여건의 악화로 인한 문제에 여성보다 더 크게 영향을 받는 것을 알 수 있다(〈표 5 참조〉).

〈표 5〉 성별에 따른 실직사유

(단위: 명, %)

구분	성별		전체
	남자n(%)	여자n(%)	
사업장 도산, 폐업으로	15(13.9)	29(7.9)	44(9.3)
사업장 구조조정	9(8.3)	10(2.7)	19(4.9)
급여연체	2(1.9)	9(2.5)	11(2.3)
본인/가족 건강사유	18(16.7)	49(13.4)	67(14.1)
조직 내부와의 갈등	1(0.9)	9(2.5)	10(2.1)
거리가 멀어서	1(0.9)	3(0.8)	4(0.8)
기타	6(5.6)	22(6.0)	28(5.9)
실직경험 없다	62(57.4)	220(59.9)	282(59.5)
무응답	56(51.9)	236(64.3)	292(61.5)
전체	108(100.0)	367(100.0)	475(100.0)

이외에 성별에 따른 실직 기간은 남성의 경우 3년 이상이 15명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여성의 경우 6개월 미만이 26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실직기간이 남성에 비하여 비교적 단기간이

많은 이유는 짧은 실업이후 정규직 구직보다 시간제·비숙련직 등 비정규직으로 구직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 3) 가계 경제 부문

〈표 6〉에서 보는 것처럼 가계경제 생활은 331명인 69.7%가 본인의 급여로 생활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배우자 78명 16.4%, 기타 27명 5.7%, 자녀·기타 가구원 24명 5.1%로 나타났다. 이를 성별에 따라 분석을 하면 여성이 260명 78.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마이크로크레디트 제도는 여성빈곤자, 여성예비창업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표 6〉 가계경제 담당가구원

(단위: 명, %)

구 분	총계		여		남	
	N=475	%	n=367	%	n=108	%
본인	331	69.7	260	70.9	71	65.7
배우자	78	16.4	60	16.3	18	16.7
자녀·기타 가구원	24	5.1	18	4.9	6	5.6
기타	27	5.7	16	4.4	11	10.8
무응답	15	3.1	13	3.5	2	1.8

가계경제 생활에 있어 가장 많이 지출되는 항목은 식료품비 171명 (36.0%), 교육비 142명(29.9%) 주거비 81명(17.1%) 등으로 나타났다. 1순위 지출항목과 2순위 지출항목이 동일하게 응답됨에 따라 가장 많이 지출되는 항목은 식료품) 교육비) 주거비 순으로 나타났다(〈표 7〉 참조).

〈표 7〉 가계경제의 지출항목

(단위: 명, %)

전 체	N=475	%
식료품	260	36.0
보건의료비	32	6.7
교육비	142	29.9
주거비	81	17.1
조세, 공과금	15	3.2
의류비	3	0.6
교통, 통신비	17	3.6
기타	8	1.7
무응답	6	1.3

현재 가계 경제가 곤란을 처하게 된 원인에 대하여 자신의 건강상태가 나빠서 75명 15.8%,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없거나 작아서 72명 15.2%, 나의 노력이나 의지 부족 64명 13.5%,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61명 12.8%로 나타났다(〈표 8〉 참조).

〈표 8〉 가계경제가 곤란한 원인

(단위: 명, %)

전 체	N=475	%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61	12.8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없거나 적어서	72	15.2
자신의 건강상태가 나빠서	75	15.8
실직 등으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30	6.3
사업에 실패해서	46	9.7
가족구성원이 병에 걸리거나 사고를 당해서	45	9.5
나의 노력이나 의지 부족	64	13.5
기타	45	9.5
무응답	37	7.8

현재 가정에서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자금의 종류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가장 많은 응답은 생활자금 190명 40.0%로 다음은 채무변제 자금 78명 16.4%, 주거비 66명 13.9%, 교육비 50명 10.5%로 나타났다(〈표 9〉 참조).

〈표 9〉 현재 가장 시급한 자금

(단위: 명, %)

전 체	N=475	%
생활자금	190	40.0
채무변제 자금	78	16.4
창업자금	43	9.1
교육비	50	10.5
주거비	66	13.9
기타	15	3.2
무응답	33	6.9

가계 경제에 있어 채무관계가 있다고 응답한 226명의 채무 상태는 은행 82명, 두 군데 이상 60명, 기타·카드 36명, 친척·지인 27명,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11명, 사채 9명으로 나타났다.

〈표 10〉 가계경제의 채무관계

(단위: 명)

기관 \ 금액	계	1천만 원 미만	1천-2천 만원미만	2천-3천 만원미만	3천-4천 만원미만	4천-5천 만원미만	5천-1억 미만	1억 이상	무응답
은행	83	24	16	8	12	4	5	3	11
신협 마을금고	11	4	1	1	-	1	-	-	4
사채	9	2	-	1	2	-	3	-	1
친척·지인	27	9	11	2	2	-	1	-	2
기타·카드	36	10	3	3	5	2	1	1	11
2군데 이상	60	18	12	9	4	5	1	-	11
총계	226	67	43	24	25	12	11	4	40

#### 4) 창업부문

‘창업을 해 본 적이 있다’는 127명 26.7%, ‘창업을 고려했으나 실행에 옮기지 못한 경우’ 60명 12.6%, ‘창업을 해 본적이 없다’ 260명 54.7%로 전체 응답자 가운데 창업을 시도하지 않았거나 해 본적이 없는 경우는 67.5%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창업에 대한 불확실과 전문성, 의지 부족으로 인한 소극적 행태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향후 마이크로크레디트 제도에서는 이들의 가지는 금융, 경영에 대한 미래 불확실성을 최소화시켜 주며 사후관리, 자조모임, 1대1 컨설팅 등을 통해 자립, 자활의지를 강화시켜 나가는 데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성별에 따라 창업여부에 대한 응답은(〈표 11〉) 남성과 여성 모두 창업을 해본 적이 없다가 전체 응답자의 56.5%와 54.%를 차지함에 따라 창업을 해 본 적이 없는 경우가 많았으며, 고려했으나 실천에 옮기지 못한 경우 역시 각각 13.0%와 12.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 성별에 따른 창업경험 유무

(단위: 명, %)

구 분	계	남	여	남	여
합 계	N=475	n=108	n=367	%	%
창업을 해본 적이 있다	127	30	97	27.7	26.5
창업을 고려했으나 실천에 옮기지 못했다	60	14	46	13.0	12.5
창업을 해 본적이 없다	260	61	199	56.5	54.2
무응답	28	3	25	2.8	6.8

성별에 따른 초기창업의 성공과 실패 유무를 보면 전체적으로 성공한 사례(19명 4.0%)가 실패한 사례(85명 17.9%)보다 훨씬 크다. 성별의 차이를 보면 성공사례는 여성(16명, 4.4%)이 남성(3명, 2.8%)보다 약간 많고 실패사례는 남성(20.4%)이 여성(17.2%)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 현재와 같은 제주지역 경제 상황에서는 여성이 창업성공확률이 상대적으로 남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지역 자영업자, 창업자들의 성공률이 낮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무엇보다도 경영마인드와 자립의지 부족을 중요 요인으로 꼽고 있다. 따라서 초기 마이크로크레디트 제도의 주안점은 이를 집중 보강하여 초기 성공률을 높이기 위하여 이들의 사기진작과 수익개선에 총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창업을 한 응답자의 창업 아이템을 교차분석해보면 음식점 및 음식재료 관련 창업이 53명 40.1%를 차지하였으며, 유흥업 12명 12.8%, 옷가게 8명 8.5%로 나타났다. 창업을 고려하는 응답자 역시 음식점 및 음식재료 3명으로 나타났다. 이에 미루어 볼 때 초기 창업은 우선 자본 마련 접근이 용이하며 시장 진입과 탈퇴가 용이한 아이템을 중심으로 하되, 아이템 선정에 관해 초기부터 전문가가 개입하여 치밀한 상권분석, 소비 행태 등을 고려한 다각적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표 12〉 창업 아이템

(단위: 명)

	계	컴퓨터 관련	음식점 및 음식 재료	자동차 관련 (카센터 포함)	술 집	세탁/ 옷수선	해초 간조기 사업	건설 업	배달업 (우유 등)	의 류	꽃 가 게	미 용 실	기 타	무 응 답
해본 적이 있다	127	1	53	2	12	4	1	5	4	8	2	1	1	34
고려 했으나 실천에 옮기지 못했다	60	·	3	0	0	2	0	0	0	1	0	0	0	53

창업에 따른 실패 이유로 경기악화 29명 22.8%, 상권분석실패 15명 (13.8%), 운영 자금부족/상권분석 실패 각 15명 11.8%, 기타 13명 10.2%, 창업 아이템의 실패 9명 7.1%, 종업원과의 어려움 8명 6.3%, 창업에 들어간 대출금 상환에 따른 어려움 6명 4.7%, 동업자와의 불화 4명 3.1%, 사채로 인한 자금압박 3명 2.4%, 자연재해 1명 0.9%로 나타났다. 이에서 나타난 창업실패의 이유 등이 마이크로크레디트 제도의

주안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즉 상권분석 실패, 대출금, 아이템 부족 등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지원제도와 조직, 사업 등에 대한 고려가 중요하다(〈표 13〉 참조).

〈표 13〉 창업 실패 이유

(단위: 명, %)

구 분	N	%
창업 아이템의 실패	9	7.1
상권분석실패	15	11.8
경기악화	29	22.8
동업자와의 불화	4	3.1
종업원과의 어려움	8	6.3
운영자금 부족	15	11.8
창업을 위한 대출금 상환의 어려움	6	4.7
사채압박	3	2.4
기타	13	10.2
화재 등의 자연재해	1	0.9
무응답	24	18.9
합계	127	100

창업을 고려하지 않은 응답자 260명의 응답자들에게 창업을 하지 않은 이유를 물은 질문에 창업자금의 부족 83명 31.9%, 창업에 따른 두려움 57명 21.9%, 창업 아이템 부족 35명 13.5%, 기타 28명 10.8%, 창업에 대한 기술 부족 20명 7.7%, 창업에 대한 실패 경험 1명 0.4%로 응답했다. 이러한 결과로 보아 마이크로크레디트 제도 초기에는 창업자금, 창업의지, 아이템 부족, 기술부족 등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지원제도와 조직, 사업 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창업을 위하여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적극적인 대출을 받겠다’ 278명 58.5%, ‘대출받지 않겠다’ 151명 31.8%, 무응답 46명 9.7%로 나타났다. 대출을 희망하지 않은 이유를 교차 분석한 결과 은행에서 대출받기 위한 담보 등의 자격조건 부족, 대출에 따른 높은 이자율, 기존 창업의 실패에 따른 기존 대출금 미상환, 현재의 신용상태로 인해서 등으로 조사되었다. 이 응답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은행권 대출에서 소외된 계층들의 대출을 지원함으로써 해서 이들의 창업을 통한 자립, 자활 의지와 기반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표 14〉에서 보듯이 성별에 따른 창업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의사가 있는지를 묻는 질문 결과를 보면 남자(68명, 63.0%)가 여자(210명, 57.2%)보다 창업시 은행에서 대출받을 의사가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여성보다 남성이 금융기관과의 거래경험이 많고 신뢰가 생겨 그런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남성이 창업시 여성보다 자본금 면에서 큰 규모임으로 여성에 비해 은행을 선호하는 것으로도 여겨진다.

〈표 14〉 성별에 따른 창업시 은행대출 의사 유무

(단위: 명, %)

구분	성별		전체
	남자	여자	
무응답	9(8.3)	37(10.1)	46(9.7)
있다	68(63.0)	210(57.2)	278(58.5)
없다	31(28.7)	120(32.7)	151(31.8)
전체	108(100.0)	367(100.0)	475(100.0)

창업자금을 마련하는 방법으로 은행대출 234명 49.3%, 저축·보험 92명 19.4%, 신협·마을금고 19명 4.0% 등으로 나타났으며, 대출을 통

한 자금 마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현재 마이크로크레디트 제도의 잠재적 수요자는 은행권 대출 소외자 계층으로 여겨진다. 추후 마이크로크레디트와 유사한 제도들이 은행권 이용 소외 계층에 대한 금융지원정책의 증가 추세를 보면 제주지역의 마이크로크레디트 제도 도입이 시의 적절하다고 판단된다(〈표 15〉 참조).

〈표 15〉 창업자금 마련 방법

(단위: 명, %)

구 분	1순위	2순위
전 체	N=475/%	N=475/%
은행 대출	234/49.3	56/11.8
저축·보험	92/19.4	56/11.8
신협이나 마을금고 대출	19/4.0	71/14.9
사채	7/1.5	16/3.4
부모·친척·지인	43/9.1	49/10.3
기타	15/3.2	7/1.5
무응답	65/13.7	223/46.9

창업자금을 대출과 관련하여 기관별로 2천만원-3천만원 미만이 가장 많으며, 3천만원 이상, 1천만원-2천만원, 500만원-1천만원, 500만원 이하 순으로 나타났다.

대출희망에 있어 소득별 대출 희망 금액과 관련 분석을 실시한 결과 100만원 미만이 대출 희망 빈도가 가장 높고, 2천 만 원-3천 만 원 미만 61명 31.6%, 100-200만 원 이하 소득인 경우 24명 36.4%가 3천만원 이상의 대출을 희망하였다(〈표 16〉 참조).

〈표 16〉 소득별 희망대출금 규모

(단위: 명)

희망대출금 월소득	500만원 미만	500- 1천만원 미만	1천- 2천만원 미만	2천- 3천만원 미만	3천만원 이상	전체
100만원 이하	7	25	48	61	52	193
100-200만원 이하	1	5	14	22	24	66
200-300만원 이하	1	1	5	5	1	13
300-400만원 이하	0	2	0	2	7	11
400-500만원 이하	0	0	0	1	4	5
500만원 이상	0	0	1	0	0	1
합계	9	33	68	91	88	289

반면 창업자금을 마련하는 방법으로 무응답자를 제외한 2순위응답자 252명만을 분석하면 신탁이나 마을금고 71명 28.2%, 저축·보험 56명 22.2%, 은행대출 53명 21%, 부모·친척·지인 49명 19.4%, 사채 16명 6.3%, 기타 7명 2.8%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출을 희망하지 않은 응답자 151명에 대하여 대출을 받고 싶지 않은 이유를 분석한 결과 은행에서 대출받기 위한 담보 등의 자격조건 부족 49명 32.5%, 대출에 따른 높은 이자율 30명 19.9%, 기존 창업의 실패에 따른 기존 대출금 미상환 23명 15.2%, 현재의 신용상태로 인하여 17명 11.3%, 기타 16명 10.6%, 무응답 16명 10.6% 등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창업을 희망하고 있으나, 경제적인 여건으로 인하여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경우와 창업 실패의 빈도가 높은 것을 보아 자활·자립을 위한 창업 후 지원과 관련된 연계방안은 매우 중요하고 필요하다. 또한 마이크로크레디트는 창업지원 및 경영지원, 컨설팅, 사후관리 등에 주력하여 궁극적으로 자립, 자활기반과 의지를 확보하는 데 목표를 두어야 한다.

창업을 준비에 있어 가장 어려운 점에 대하여(〈표 17〉) 창업자금 관련 201명 42.3%, 창업/업종 아이템 선정 103명 21.7%, 장소·시장조사 22명 6.8%, 창업관련 기술·준비교육 32명 6.7%, 유통/판로/시장 확보 14명 2.9%, 창업에 따른 보육·돌봄 문제 15명 3.2%, 기타 14명 2.9% 등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마이크로크레디트를 통해 예비창업자들의 창업자금 관련, 창업/업종 아이템 선정, 장소·시장조사, 창업관련 기술·준비교육, 유통/판로/시장 확보 문제에 적극적인 지원을 강화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17〉 창업 준비시 가장 어려운 점

(단위: 명, %)

전 체		N=475	%
창업자금관련	창업자금마련	145	30.5
	은행 대출 등 자본금 마련	45	9.5
	창업지원기관 창업자금 마련 조달	11	2.3
시장조사관련	창업 장소 물색	17	3.6
	입지선정 및 확보	6	1.3
	창업 아이템조사	103	21.7
	시장조사	9	1.9
창업훈련관련	창업관련 기술 습득	29	6.1
	창업 상담 및 기관 상담	2	0.4
	창업준비교육	3	0.6
유통/판로/시장확보		14	2.9
창업에 따른 돌봄문제		15	3.2
기타		14	2.9
무응답		62	13.1

창업을 하고 나서 겪는 어려움에 대한 응답은 운영자금(자금조달) 187명 39.4%, 홍보·마케팅 69명 14.5%, 시장개척 49명 10.3%로 나타났다. 이처럼 창업을 하고 나서 겪는 어려움에 대한 응답은 운영자금(자금조달), 홍보·마케팅, 시장개척 등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창업지원 이후에도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자금 관련, 창업/업종 아이템 선정, 유통/관료/시장 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사후관리에 정책적 관심을 기울여야 하겠다(〈표 18〉 참조).

〈표 18〉 창업 후 겪는 어려움

(단위: 명, %)

전 체	N=475	%
운영자금(자금조달)	187	39.4
홍보 및 마케팅	69	14.5
시장개척	49	10.3
시장정보 수집	14	3.0
종업원 관리	8	1.7
법무/세무관련	4	0.8
사업기술 확보/증진	21	4.4
고객관리	28	5.9
기타	9	1.9
무응답	86	18.1

## 6) 무담보소액대출 제도 부문

무담보소액대출 제도에 대한 인지 여부는 응답자의 79.7%인 379명이 모르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인지하는 응답자는 14.9%인 71명으

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이 마이크로크레딧 제도를 정확히 알고 있지는 않고 있지만, 현재의 빈곤 상태를 벗어나기 위한 노력으로 창업을 희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의 빈곤 상태를 벗어나기 위한 노력으로 창업을 희망하고 있는 계층이 다수인 점을 고려해 볼 때, 향후 마이크로크레딧은 창업지원 및 경영지원, 컨설팅, 사후관리 등에 중점을 두고 제도를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19〉는 성별에 따른 마이크로크레딧 제도에 대한 인지도를 묻는 질문의 교차분석적이다. 성별에 따라서는 여성(59명, 16.1%)이 남성(12명, 11.1%)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당초 마이크로크레딧 제도가 국내외에서 여성중심으로 활성화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표 19〉 성별에 따른 마이크로크레딧 제도의 인지도

(단위: 명, %)

구 분	성별		전체
	남자	여자	
무응답	5(4.6)	20(5.45)	25(5.35)
알고 있다	12(11.1)	59(16.1)	71(14.9)
모른다	91(84.3)	288(78.5)	379(79.8)
전체	108(100.0)	367(100.0)	475(100.0)

마이크로크레딧 제도가 도입된다면 이용하실 의향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이용할 의사가 있다 188명 39.6%, 고려해볼 의사가 있다 177명 37.3%, 이용할 의사가 없다 86명 18.1%, 무응답 24명 5.1%로 나타났으며, 응답자의 77.2%인 365명이 마이크로크레딧 제도 이용에 대하여 긍정적인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응

답자 절대수가 마이크로크레딧 제도 도입 시 이 제도를 이용할 용의가 있다는 응답한 것으로 보아 제주지역에 마이크로크레딧 도입에 대한 논의는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마이크로크레딧에 관한 인지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제도의 도입과 제도 시행 초기, 혹은 준비단계에 있어 마이크로크레딧 제도에 관한 대대적인 홍보 등을 통하여 제도의 인지도를 높이는 방안 마련이 함께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표 20>에서 보는 것처럼 무담보소액대출 제도 도입시 이용할 의향을 묻는 질문에는 남성(48명, 44.4%)이 여성(140명, 38.1%)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 남성이 제도시행에 대해 더 우호적이며 정책을 신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0> 성별에 따른 무담보소액대출 제도 도입시 이용의향 (명, %)

구 분	성별		전체
	남자	여자	
무응답	3(2.8)	21(5.7)	24(5.1)
있다	48(44.4)	140(38.1)	188(39.6)
고려해볼 의사가 있다	37(34.3)	140(38.1)	177(37.3)
없다	20(18.5)	66(18.6)	86(18.1)
전체	108(100.0)	367(100.0)	475(100.0)

무담보소액대출 제도 운영에 있어 요구되는 부분에 대한 질문을 8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질문을 한 결과 적극적으로 제도를 이용할 의향이 있는 경우 선호하는 제도는 ①금리 연 2~4%, ②1인당 대출금액(최

대 3천만원), ③창업 아이템 교육 훈련 이수 등의 순으로 응답을 하였으며, 고려하겠다는 창업 아이템 교육 훈련 이수, 금리 연 2-4%, 1인당 대출금액(최대 3천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무담보소액대출 제도에서 요구하는 조건들을 수행할 수 있다는 응답 결과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무담보소액대출 제도 시행시 지역주민의 관심과 수요가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무담보소액대출 지원 자격에 있어 3인 이상의 공동체를 구성하는 것에 대한 응답에 제도 이용을 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응답자와 제도 이용을 고려하여 보겠다는 응답자의 응답에서 공동체를 형성하는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수용 여부가 드러나지 않았다.

## 5. 결론

제주지역 무담보소액대출 도입의 필요성 검토를 위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절대 다수가 무담보소액대출 제도 도입 시 이 제도를 이용할 용의가 있다는 응답한 것으로 보아 제주지역 무담보소액대출 제도 도입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무담보소액대출 제도에서 요구하는 조건들을 수행할 수 있다는 응답 결과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무담보소액대출 제도 시행 시 많은 지역주민의 관심과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조사결과 가계경제를 꾸러나가는데 있어 본인 급여 생활이 전체 응답자의 331명 69.7%로 이 가운데 여성이 260명 78.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무담보소액대출 제도는 무엇보다 여성빈곤자, 여성예비창업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제주지역의 사회 경제적 상황, 즉 전국 최고 수준의 자영업자 비율, 날로 증가하는 자영업 창업비율,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자영업

영업이익, 전국 하위 수준의 창업성공률 등에 비추어볼 때 제주지역 무담보소액대출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높다. 이와 함께 정부 및 금융기관의 소액신용시장 확대 정책, 새로운 창업 아이템 발견 가능성(창업시장 다양화 가능성), 무담보소액대출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휴면예금 재원 활용 가능 등도 제주지역 마이크로 도입에 따른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러나 무담보소액대출에 관한 인지도가 아주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이 제도의 시행 초기, 혹은 준비단계에서 무담보소액대출에 관한 대대적인 홍보 등을 통하여 무담보소액대출 제도의 인지도를 높이는 데 주력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기존의 각종 금융지원, 창업 지원 사업 등과의 차별성을 기하고 무담보소액대출 제도의 시행 시 나타날 수 있는 각종 부작용과 역기능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제주지역에서의 무담보소액대출은 창업지원 및 경영지원, 컨설팅, 사후관리 등에 주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궁극적으로는 자립·자활의 기반과 의지를 확보하는 데 목표를 두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무담보소액대출 제도에서는 창업지원자가 가지는 경영에 대한 미래 불확실성을 최소화시켜 주며 사후관리, 자조모임, 1대1 컨설팅 등을 통해 자립·자활의지를 강화시켜 나가는 데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또한 제주지역 자영업자, 창업자들의 성공률이 낮은 이유가 무엇보다도 경영마인드와 자립의지 부족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무담보소액대출 제도는 이 점을 집중 보강하고 초기 성공률을 높여 이들의 사기진작과 수익개선에 총력을 기울려야 할 것이다.

그러나 내실 있는 무담보소액대출 제도의 추진을 위해서 제주형(型) 무담보소액대출 모델 개발이 필요하며 제주형 무담보소액대출 모델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보완하여 개발되어야 한다. 즉 무담보소액대출 제도 등 대안금융체계에 대한 사회적 인식 미흡, 재원 조달 기반의 취약

약성, 지역전문가의 자원봉사 기반 미약, 자영업 경영여건 악화, 진입장벽이 낮은 숙박 및 음식업, 운수업 등 포화 상태, (창업지원 관리자 등) 실무 경력 기반 빈약 등과 같은 약점요소의 보완이 절실하다. 또한 기존의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창업 지원제도, 민관협력체계에 따른 전시 또는 실적주의 행정의 위험, 정부 등 공적기관의 지원에 따른 민간 기업 기부욕 상실, 금융기관들의 소액 금융시장 진출, 수혜자의 모럴해저드(Moral Hazard) 등과 같은 위협요인들에 대한 제도적 보완장치가 적극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아울러 창업을 희망하고 있으나, 경제적인 여건으로 인하여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경우와 창업 실패의 빈도가 높은 것을 보아 자활·자립을 위한 창업 후 지원과 관련된 연계방안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무담보소액대출은 창업지원 및 경영지원, 컨설팅, 사후관리 등에 주력하여 궁극적으로 자립, 자활기반과 의지를 확보하는 데 목표를 두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현재 무담보소액대출 제도의 잠재적 수요자는 은행권 대출 소외자 계층으로 여겨지며 추후 무담보소액대출과 유사한 제도들이 은행권 이용 소외 계층에 대한 금융지원정책이 증가할 전망이다. 따라서 제주지역에서 여성창업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무담보소액대출 제도 도입과 함께 창업을 지원할 수 있는 지역 맞춤형 기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원고접수: 2010. 10. 20

원고수정: 2010. 11. 05

게재확정: 2010. 11. 30

## 참고문헌

노대명(2006), “근로빈곤층의 소득 및 신용증진을 위한 마이크로크레디

- 트 확대방안”, 2006년 “제1회 클머니 컨퍼런스자료집”, 제1회 클머니 컨퍼런스.
- \_\_\_\_\_(2007), “한국 마이크로-크레디트의 현황과 과제”. 2007 마이크로 크레디트 일한 국제교류세미나 자료집.
- 노대명 외(2003), “저소득층 창업지원모형에 관한 연구-각국의 사회연대은행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부산발전연구원(2006), “빈곤의 여성화 측면에서 본 마이크로크레디트의 지역적 의의에 관한 연구”, 여성경제 조사연구 2006-02.
- 사회연대은행(2007), “RM 양성 아카데미 계획서”, 자료집
- 사회투자지원재단(2008), “한국의 유누스를 꿈꾸며”, 마이크로크레디트 전문인력 양성 프로젝트 자료집.
- 윤찬영 · 류만희(2005), “마이크로크레디트의 제도화”, 2005 사회연대은행 심포지엄 자료집.
- 이건호 · KDI, 2010년 특집(<http://blog.daum.net/nara-economy/7706570>).
- 이민규(2006), “마이크로크레디트의 의의와 국내외 현황”, 『금융시스템 리뷰』 제14호, 한국은행.
- 이종수(2005), “마이크로크레디트의 세계적 동향과 한국의 경험”, 2005 사회연대은행 심포지엄 자료집.
- 이혜경 외(2005), 『저소득층 창업활성화를 위한 연구』, 보건복지부, 사회연대은행.
- 임원희(2006), “마이크로크레디트 제도에 대한 개관과 한국의 도입 현황 및 정책제언”,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사회복지정책』, 제25권.
- 임채율(2005), “마이크로크레디트 활성화 방안”, 『조사연구 Review』, 여름호, 금융감독원.
- 제17대대통령직인수위원회(2008), 『제17대대통령직인수위원회 백서 1: 성공 그리고 나눔』.

최청락(2006), “빈곤의 여성화와 마이크로크레디트의 지역적 의의”,  
2006년도 제3회 부산여성경제포럼 자료집.

최홍관(2005), “효율적인 Microcredit 관련정책과 프로그램 성공사례”,  
2005 APEC-WIN 자료집, 중소기업청·한국여성경제인협회.

OECD(1996), "Microcredit in Transitional economics".

Nissanke, M., 2002. "The Microfinance Promise",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vol.37(4).



〈Abstract〉

## Plan for Invigorating of the Women's Foundation through Adopting the Microcredit in Jeju

Young-Tae Jung

This study examines the women entrepreneurs aims for strengthening strategy about weak manufacturing industry base in Jeju, Especially, based on a survey of a micro-credit institutions. The vast respondents are willing to use that when introduction micro-credit in Jeju. Moreover, household income from one family member response 69.7% and women respondents are 78.6% in there. For those reason, we expect that micro-credit institution has positive impact for the poor or pre-founder women. Jeju area has highest ratio of female labor force participation and owner-operator, but weak industrial base, low establishment success, and the real situation are very fragile. Eventually, accept the existing system of micro-credit as well if you encounter difficulties at high risk given that micro-credit model, so we have to develop the micro-credit model or find a new model for Jeju area. Finally, before adoption to the micro-credit system in Jeju, we need strengthen the strength and make up for the weakness of existing system and focus on women's foundation

in Jeju. That bring changing reality that women's foundation or owner-operator problems.

**KEY WORDS:** women's foundation, women (economic) activity rate, Micro-credit, Micro-credit model for Jeju area

K C I

КСІ